



영화 '내부자들'

교육부 간부 망언으로 본 분노 유발 대사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

- 영화 '내부자들' 중

“우매한 대중은 다스려야 해”

- SBS '풍문으로 들었소' 중

“구걸에 맞들인 자는 절대 대들지 못한다”

- KBS '정도전' 중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짚어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망언으로 지난 12일 파면 조치가 결정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대사다. 영화 속 막강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백운식 분)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살아온 재벌 오회장(김홍파)에게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며 조언(?)하는 말이다.

영화 속에서는 여론 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화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국회에 나와 사죄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막말 파문 사흘 만에 전격 파면 조치가 결정됐다.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하면서 또 통쾌하게 현실을 꼬집어 귀에 꽂히는 대사들을 꼽아봤다.

◇ 우매한 대중은 개, 돼지, 소, 일개미 = 대중을 개, 돼지라 폄하하는 대사는 '내부자들'에만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빈번하게 있어왔고, 현재 방송 중인 OCN 금드라마 '38 사기동대'에도 나온다. 57억을 탈세해놓고도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룬살롱 업자 마진석(오대환)은 가난한 시청 세금공무원 백성일(마동석)을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

“세상 참 평등해졌어. 그죠? 이젠 개나 소나 골프친다고 잡히고, 잘 사는 애들이나 못 사는 애들끼리나 같은 선상 밑에서 교육받고, 평등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정말. 평등한 사람들이 정말 격 떨어지게...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꼭 못사는 것들이 잘사는 사람들 다 따라 하려고 해요. 그지 새끼들. 그지들.”

지난해 방송된 SBS '풍문으로 들었소'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풍자하며 호응을 얻었다. 극중 권력과 부를 모두 손에 쥔 최고의 상류층 한정호(유준상)가 애독하는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정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군주론'을 읽게 한 후 이렇게 교육한다.

“우매한 대중은 다스려야 해. 그때 귀족성을 내세우면 안 돼. 차별에 민감한 대중들이 상처받거든. 입 밖에 내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힘이다.”

◇ 없이 사는 것들이 지들끼리 치고받아 준다 = 2012년 파란을 일으켰던 SBS '추적자'에서 노회찬 재벌 회장 서동환(박근형)은 아랫사람, 없이 사는 사람을 부리는 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동윤아, 니 농사 지어봤나? 지주가 그 수많은 소작농을 우짜 관리하겠노? 그래가 마름이라는 걸 뵈다 아이가.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나가면 소작농이 지주는 안 무서워하고 마름을 무서워한다.”

그는 또 대중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다고도 비유한다.

“이 나라 백성들 맘을 우에 알겠노. 4.19가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다 뭐다 그래 난리를 치더지만, 한 해 뒤에 5.16이 일어나니까 민주주의보다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쳤다 아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이 나라 백성들의 맘인가라.”

“38 사기동대”의 수백억 체납자 방필규(김홍파) 회장은 대중은 부자들의 동정심을 먹고 산다고 틀만 나면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세금을 받으러 온 공무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먹고 자고 싸고 읽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나 같은 사람이 너희에게 동정심을

로 배분 거라고. 동정심을 권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설마?”

◇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도 없다 = 2014년 중년남성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던 KBS '정도전'에서는 고려말 권문세족 이인임(박영규)의 뼈있는 말들이 화제가 됐다. 그는 시종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도 없지요. 세상을 바꾸려거든 우선 힘부터 기르세요. 고자 당신 정도가 때를 쓴다고 바꿔 세상이었으면 난세라고 부르지도 않을 테지요.”

“의욕은 금방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요”

이인임은 또 사람을 부리는 법도 설명했다.

“구걸에 맞들인 자는 절대 대들지 못한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지난해 방송된 SBS '편지'에는 검찰총장을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이태준(조재현)의 논리가 화제가 됐다.

이태준은 또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부하 검사인 정환(김래원)에게 “서울지검에서 검사복 입고 일 시작한 거 잊고 계 같은데, 저 횡단보도 하나 건너오는데 30년이 걸렸네. 어느 놈은 빨간불에 건너다가 자빠지고, 어느 놈은 파란불 기다리다가 넘어지고, 정환아. 니앞에 파란불은 내가 켜주꾸마”라고 말했다.

/연철뉴스



“흥미로운 첩보물에 출연 결심”

영화 '인천상륙작전' 이정재 “승고한 희생 되새길 기회”

'인천상륙작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사진>는 전쟁 영화가 아닌 첩보 영화인 점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리얼 뉴스 내한 기자회견에 이재한 감독, 정태원 제작사 대표와 함께 참석해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매력과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인 해군 첩보부대와 그들을 도운 첩보부대(연합군 소속의 한국인 스파이 부대)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이정재는 해군 첩보부대의 'X-레이' 작전을 이끄는 수장 장학수 대위를 연기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받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제목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하는 전쟁 장면 위주의 영화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시나리오가 인천상륙작전이 실행되기 전 첩보상황을 수집하는 인물들 다룬 첩보물 이어서 신선하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맡은 장학수가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흥미를 느끼게 됐다”며 “한국 전쟁에서 승고한 희생을 한 이들 모를 인물들을 이야기한 영화여서 주저 없이 출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연기를 준비하면서 들은 첩보부대 소속 임병대 중위와 홍사육 하사의 희생을 언급하며 “영화에서 최대한 잘 표현해

그분들의 승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중위와 홍 하사는 인천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북한군에 포위되자 불잡힐 경우 작전이 타로 날 것으로 판단해 군사기밀을 지키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륙작전이 아닌 첩보작전을 다룬 이유에 대해 정태원 대표는 “우리 해군첩보부대의 활약상이 잘 드러난 작전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희생이었기 때문에 영화화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작전을 지휘한 함명수 제독을 찾아뵙고 그 당시 상황의 설명을 들었고, 상륙작전 때 계산 여러 어른에게 자문하며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재한 감독은 “1950년대 이야기를 다루지만 젊은 관객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첩보 영화를 다시 보고 연구했다”며 참고한 영화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007’ 시리즈, ‘제이슨 본’ 시리즈 등을 들었다.

이정재는 또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리얼 뉴스에 대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한 컷트가 끝나고 나서 다음 컷트로 넘어갈 때 현장을 거닐면서 맥아더 역할에 계속 몰입하려 하고,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연철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programs for July 14th.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for July 14th.

Table with 4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Birth Year Range, and Description. Provides horoscope information for each zodiac sign.